

2026년 3월 19일 배포 / 총 2쪽, 사진 1매

담당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문화홍보실 김현웅 전화 : 02-3459-2801

한국발명진흥회 발명문화홍보실 이혜미 전화 : 02-3459-2878

[동정] 구자용 (주)E1 회장, 제21대 한국발명진흥회장 취임
“발명-지식재산-기업 성장을 잇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



<사진설명 : 한국발명진흥회 제21대 회장 구자용>

한국발명진흥회는 19일, 서울 역삼동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발명마루에서 구자용 제21대 한국발명진흥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 신임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신기술이 되고, 이것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해 왔다"며, "기술 패권시대에 있어서 발명의 결과물인 지식재산은 국가의 핵심 자산인 만큼, 한국발명진흥회가 발명과 지식재산 그리고 기

업 성장을 서로 연결해 주는 지식재산 생태계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 47년간의 기업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진흥회 임직원 여러분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모든 역량을 모아 한국발명진흥회가 발명 교육과 발명문화 확산,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이끄는 글로벌 중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국발명진흥회는 1973년 설립 이래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발명진흥사업을 추진해 온 대표적인 지식재산 전문 공공기관으로, 초중고 발명 교육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 대학과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식재산 기반 기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 지식재산 평가 및 금융 지원 등 우리나라의 발명문화 확산과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구자용 회장의 한국발명진흥회장 취임으로 대기업인 LG·LS가와 한국발명진흥회의 특별한 인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의 전신인 한국특허협회의 제2대~제6대 회장은 당시 럭키금성그룹 회장인 구자경 전 LG그룹 명예회장이 역임했고, 제17대·18대 회장은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이 역임했다. 한국발명진흥회 53년 역사 가운데 약 1/3인 16년을 LG·LS가와 함께 하는 것이다.>